

# 세계 공급망 변화와 고용노동정책의 진로

허재준\*

1991년의 사회주의 소련의 해체,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정점에 달했던 세계화의 시대가 저무는 기색이 완연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것을 확인해 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2020년 코비드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며 크게 유행하자 세계 무역과 자본 흐름도 위축되었다. 하지만 코비드19 대유행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계 무역의 축소 경향을 결정적으로 확인해 준 것일 뿐 코비드19가 무역과 투자 흐름의 경향성을 바꾼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된 제품 중 교역이 된 생산물의 비중은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의 38%에서 2019년에는 31%로 감소했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그 내수시장이 커지고 현지 공급망 충실도가 높아지면 생산 대비 교역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세계경제에서 확인되는 교역강도 감소 경향은 이러한 신흥국 경제의 성숙 때문에 일어난 정도를 넘어선다. 2017년 즈음을 계기로 가시화된 탈세계화의 경향은, 기존의 세계 공급망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강화되고 촉진되고 있다. 세계화는 당분간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과거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된다.

WTO 규범의 확대 속에서 확립된 전 세계 공급망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간 분업 체계로 구축됐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데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등의 부품을 공급받고, 폭스콘이라는 대만 기업의 경영능력과 중국 선전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공급망 체계가 아니다. 현대자동차가 독일 디자이너에게 의존하고, 전선다발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국내 협력업체에 의존하며, 한국 노동자뿐만 아니라 체코·인도·미국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일도 하루아침에 생겨난 현상이 아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세계 음원시장의 주요국 작곡가의 힘을 빌려서 곡을 만들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태국인으로 구성된 아이돌그룹을 만들어 음악·공연시장에 진출하는 일도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이십 년 이상에 걸쳐 구축한 질서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지구촌 생산활동의 공급망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변화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지만 가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경제는 그 역할을 지속적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urjj@kli.re.kr).

으로 재정의하며 진화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압박과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이래 세계적 규모에서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과 세계 공급망 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림자는 취약계층에게 다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여러 곳에서 노정되고 있는 갈등 조정의 어려움도 더 키울 것이다. 고령화나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도전 위에, 팬데믹이 초래한 불균형으로부터의 회복탄력성이 약하면 사회갈등과 정치갈등 여지는 더 심화될 것이다.

도전이 드센 만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시장 규범과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규범을 만들어가는 전통이 부족한 노사관계가 복원력 증진을 위해 혁신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책무성 증진과 디지털 숙련 확충에서 노사는 공히 과거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지점에 들어서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한 구조조정 폭풍을 앞두고 있는 학교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이전의 근간인 조세·준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미진한 곳도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한두 세대 후에, 대감염 위기와 고령화와 세계 공급망 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21세기 초가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와 삶의 질을 전환시킨 일대 전기였고, 디지털 전환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 충격을 잘 극복해 낸 시기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정책이 전환기에 대한 전반적 통찰 위에서 정책의 혁신 방향과 내용을 잘 정의해야만 하는 엄중한 도전 앞에서 있다. **KL**